

포스코 최정우 취임후 첫 조직개편... 철강부문장에 장인화



오인환 사장, 인재창조원장에 전념 3인체제 유지·연말 대규모 조직개편

올 연말까지 조직 및 인사개편을 예고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 후 소폭으로 첫 인사를 단행했다.

1일 포스코와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기존 철강 1·2부문을 통합해 만든 철강부문장에, 철강 2부문장을 맡고 있던 장인화 사장(작은 사진)을 기용했다.

철강 1부문장과 포스코 인재창조원장을 겸직했던 오인환 사장은 인재창조원장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다만 대표이사직은 내년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유지한다.



장 사장은 1955년생으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1988년 포항산업과학연구원으로 입사했다. 포스코에서는 신사업실장, 철강솔루션마케팅실장, 기술투자부문장 등을 역임한 쉿물 전문가다.

포스코 관계자는 "오 사장은 인재창조원장으로서 그룹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욱 역량을 발휘하고, 철강사업부문은 1·2부문을 통합해 시너지를 높이도록 장 사장에게 총괄 관리를 맡긴 것"이라고 밝혔다.

장 사장과 오 사장은 모두 최 회장이 포스코 회장직을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던 인물들이다. 다만 현재 최 회장, 장 사

장, 오 사장 3명이 구축한 '3인 대표이사 체제'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규모 조직개편은 연말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경영지원센터는 조직간 일체감 조성 차원에서 경영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영지원본부의 홍보실은 커뮤니케이션실로 개편해 대관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포스코그룹 커뮤니케이션과 인사, 노무 등을 맡는 경영지원센터

는 경영지원본부로 이름을 변경했다. 홍보실도 커뮤니케이션실로 개편해 대관업무까지 담당토록 했다. 대외협력팀과 사회공헌팀이 커뮤니케이션실에 통합됐다. 경영지원본부장은 기존 한성희 부사장이 그대로 맡는다. 커뮤니케이션실장도 기존 홍보실장인 이상춘 상무가 담당한다.

앞서 최 회장은 취임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비엔지니어 출신이지만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철강업계 전문가가 됐다"며 "엔지

니어 출신들이(회장을) 많이 해와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술이나 공정이 제철소에 어느 정도 존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경제성이나 상업적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개혁과제에 포함해서 포스코를 더욱 더 실질적이고 실질을 증시하는 강건한 체제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그룹 정기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에서 과거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성장 분야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업적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를 영입해 포스코와 다른 진취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최정우 신임 포스코 회장

SK텔레콤, 대구시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SK텔레콤-대구광역시

마이크로그리드 2차 구축사업 차세대 전력으로 자립도시 목표

SK텔레콤과 대구광역시가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SK텔레콤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2차 구축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7월 31일 사업 운영 주체인 대구테크노파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은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이 독립형 전력체계인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이러한 차세대 전력망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1차 구축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해 에너지수요관리형 ESS(에너지 저장장치), 태양광 및 지열 활용 융·복합 분산전원, 종합정보센터 등을 구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업체당 평균 20% 이상의 전력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 중 LED 전문업체 '테크엔'이 전력요금 0원을 기록해 '제로 에너지 팩토리'를 달성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올해 진행되는 2차 구축사업은 향후 5



대구테크노파크 권업 원장(왼쪽)과 SK텔레콤 김성환 스마트시티 유닛장이 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개월 동안 총 127억원(국비 60억, 시비 8억, 민자 59억)을 투입해 산업단지 내 40여 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7.5MWh 규모의 에너지수요관리형 ESS 및 3MW 용량의 융·복합 분산전원을 구축하고,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대구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국가산업단지에 마이크로그리드를 적용한 사례로, SK텔레콤은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전국적 확대가 예상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분야를 공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마이크로그리드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모인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의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전자, 토론토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내달부터 연구소 운영 본격화 토론토대학의 AI인프라 바탕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 박차

LG전자가 캐나다 토론토에 토론토 인공지능연구소(Toronto AI Lab)를 설립했다고 1일 밝혔다. 해외에 인공지능만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공지능연구소는 토론토대학교와 공동으로 다양한 산학과제를 수행하며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캐나다의 대학을 중심으로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분야의 원천기술 연구가 활발하다.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 연구에 투자하고 있어 미래기술 확보에 적합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전자는 캐나다의 풍부한 인공지능 연구 인프라와 토론토 대학의 뛰어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 관련한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딥러닝 분야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면서 캐나다 현지의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협력하거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도 검토한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오른쪽)과 토론토대학교 메릭 저틀러(Meric Gertler) 총장이 공동 인공지능 연구에 합의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는 토론토 인공지능연구소가 서울, 실리콘밸리, 방갈로르, 모스크바 등에 있는 인공지능 연구 조직과 협력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CTO부문 산하 소프트웨어센터에 인공지능연구소를 신설하고 음성인식과 영상인식, 생체인식 등의 인식 기술을 비롯해 딥러닝 알고리즘 등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중이다. 올해 초에는 실리콘밸리 랩 산하에 인공지능 연구 조직인 어드밴스드(Advanced) AI를 신

설해 딥러닝, 미래자동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토론토대학교 메릭 저틀러 총장은 "LG전자와 토론토대학의 산학협력은 향후 인공지능 분야 오픈 이노베이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박일평 사장은 "이번 협력이 원천기술 개발에도 '오픈 파트너십' 전략이 주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컴투스, 창립 20주년 기념 '희망 나눔 바자회'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는 자사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 행복한나눔과 함께 '희망 나눔 바자회'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컴투스는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컴투스 본사에서 임직원과 함께하는 사내 바자회를 열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바자회는 임직원들이 기증한 개인 물품 1000여점이 모여 진행됐으며, 의류, 가전제품, 도서, 인테리어 소품 등의 기증품이 모였다.

행사 당일에는 임직원들이 기부한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됐다. 바자회 이외에도 농구, 다트, 야구 등 다채로운 참여형 기부 이벤트가 마련됐다. 또 임직원이 직접 구운 봉어빵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봉



컴투스의 '희망 나눔 바자회' 전경. /컴투스

어빵 타이쿰' 코너도 운영돼 자사의 인기 게임을 추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사내 바자회 및 게임 이벤트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나눔 문화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행복한나눔에 전액 기부돼 국내외 소외 계층을 후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하이닉스, 사내벤처 '하이게러지' 아이디어 공모

SK하이닉스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하이게러지(HiGarage)에 참여할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하이게러지는 구성원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지원을 통해 창업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차고(garage)에서 창업한 것에서 착안해 명명했다. 모집 분야는 반도체, ICT 등 제한은 없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도 접수한다.

하이게러지는 8월부터 9월 초까지 지원자 모집을 거친다. 10월까지 사내의 전문가의 심사를 마친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선정된 구성원은 기존 업무에서 벗어난 별도의 공간에서 벤처 사업



화를 준비하며 최대 2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성공적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외부 벤처 전문가의 컨설팅도 수시로 진행한다. 하이게러지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된

벤처 기업은 최종적으로 창업과 SK하이닉스 사내 사업화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창업에 나설 경우에는 창업 장려금 또는 지분 투자의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후 일정 기간 내 폐업시 재입사를 보장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 사내 사업화를 선택하는 경우 SK하이닉스 사업에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회사 가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사내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는 해당 구성원에게도 일정 부분 배분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교육 담당 김대영 상무는 "하이게러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과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